

생존음악가 첫 아카이빙 전시…음악가의 발자취 펼치다

‘김승일 아카이브’전 24일부터 화순 소소미술관
리플렛·악보·저서·강의자료·자필 원고·사진 등
“지역 음악사 주도한 작곡가의 삶과 시대 조망”



이름만대도 알만한 음악가가 전시장에 온 생애의 족적을 펼친다. 미술작품이 아니지만 그동안 걸어 온 음악인의 길과 다채로운 음악세계를 엿볼 수 있는 발자취들을 한데 모아 선보인다. 이는 광주에서는 생존음악가 첫 아카이빙 전시여서 주목된다. 19일 전남 화순 소소미술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광주를 중심으로 60여 년간 음악 창작과 교육의 길을 걸어온 작곡가이자 교육자, 그리고 예술가인 김승일 작곡가(전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교수)의 삶과 창작의 기록을 만나는 ‘김승일 아카이브’전을 갖는다. 이번 아카이브 전시에는 작곡발표회 1~8회 리플렛 및 악보를 비롯해 김승일 작곡가의 음악 저서 11권, 강의자료, 자필 원고, 작곡 노트, 음반·실연 기록 아카이브, 음악적 영감의 사진 및 에세이 등 다양한 자료들을 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전시는 김승일 작곡가의 생애와 작품 세계

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자리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그의 음악 여정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승일 작곡가는 6·25 전쟁 직후,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워왔으며, 1970년 제1회 작곡발표회를 시작으로 총 8회의 개인 발표회, 다양한 장르의 음악 저작물, 11권의 음악 관련 저서, 수십 년간의 강의안과 교육자료, 다수의 음반과 실연 기록 등 음악인의 궤적을 성실히 남겨왔다.

특히 아카이브의 주제가 직접 참여하고 구성한 ‘생존 작곡가의 아카이빙’이라는 점과 대부분의 예술 아카이브가 사후에 이뤄지는 현실 속에서 김승일 작곡가 본인이 음악 인생을 돌아보고 후학들과 지역사회에 남기고 싶은 기록을 스스로 정리하고 공유하기로 한 점이 의미를 더한다.

전시장에는 김승일 작곡가가 직접 기획해 온 작곡 발표회 리플렛과 자필 원고, 교단과 무대를 오가며 쌓아온 교육 자료, 출판된 음악 저서와 악보들, 그리고 대표 작품의 음원이 시대별로 구성되는 가운데 전시 공간 한 편에는 김 작곡가에게 깊은 영감을 줬던 사진 작품도 함께 소개된다.

김승일 작곡가는 1943년 광주 출생으로 오랜 동안 조선대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에서 후학들을 양성했



‘보리밭’ 악보 (전반부)

며, 개인 작곡 발표회를 다수 열었다. 조선대학교 사범대학장을 역임했으며, Texas Tech. Univ. School of Music 실험음악연구소 연구교수와 North Carolina State Univ. Dept. of Music 연구교수를 지냈다. 저서로는 ‘기본 서양음악사’, ‘선율 반주의 이론과 실제’, ‘음악 미학 입문’, ‘서양 음악의 이해’, ‘화성의 이해’, ‘음악 요법의 기초’, ‘음악으로의 초대’, ‘기독교 전례와 서양 음악의 변천’, ‘문화사로부터 접근하는 서양음악사’ 등 다수가 있다.

김승일 작곡가는 전시 개막에 앞서 “하늘을 향해 뻗은 거친 손의 이미지는 고통과 신념이 교차하는 인간 정신의 꽃대였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는 음

악을 향해 살아온 내 인생의 자세를 떠올리게 했다”면서 “제자들의 권유로 이런 자리가 마련됐지만, 나의 작곡 여정은 너무 누추하고 부끄럽다. 그저 ‘끓임없이 해왔구나’ 하는 삶의 과정을 조용히 돌아봐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전시를 기획한 소소미술관 에듀케이터 전수아(예술학 박사) 씨는 “음악 아카이브는 시각예술에 비해 축적과 공유가 제한적인 현실에서, 이번 전시는 지역의 음악사를 주도한 한 작곡가의 삶과 시대를 통합적으로 조망하는 매우 뜻깊은 기회”라고 덧붙였다.

개막식은 오는 24일 낮 12시 작곡가 헌정 공연과 함께 진행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전쟁의 참상·갈등 넘어 ‘평화의 가치’ 스크린에 상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을 기념하는 ‘제8회 국제평화영화제·제13회 김대중 노벨평화영화상 시상식’이 펼쳐진다.

김대중 재단(이사장 권노갑), 대한민국 헌정회(회장 정대철)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의 개막식 및 시상식은 26일 오후 2시30분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열린다. 올해 김대중 노벨 평화영화상은 명필름의 심재명 대표와 이은 대표에게 돌아갔다.

명필름은 ‘공동경비구역 JSA’와 ‘접속’, ‘와이키키 브라더스’ 등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제작해왔고, ‘건축학개론’을 통해 한국 멜로영화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며 영화사의 중요한 궤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과 신념을 담은 다큐멘터리 ‘길 위에 김대중’을 통해 영화적·역사적 의미를 확장했으며, 명필름랩 운영 등 지속 가능한 영화 생태계 구축에도 공헌해 이번 수상이 더욱 의미있다.

특별상은 배우 박중훈과 유강준 교수(상해 영화 예술대학)가 각각 받았다. 박중훈 배우는 ‘철수와 만수’, ‘라디오 스타’,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등 40여 년간 대중성과 예술성을 아우르는 연기로 인간 존엄과 화해의 가치를 깊이 있게 그려내는 한편, 작품 활동 외에도 후배 영화인들에게 꾸준히 지지를

제8회 국제평화영화제 26~29일 서울·광주
13회 김대중 노벨평화영화상 명필름 시상
박중훈·유강준 특별상…가자지구 모금도



명필름 심재명·이은 대표

보내며 영화계 공동체 정신을 지켜온 점이 주목받았다. 유강준 교수는 40여 년간 영화 제작과 교육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문화 교류와 화해의 메시지를 확산했고, 베니스영화제 은사자상을 수상한 제작자로 국제적 감각을 갖춘 교육자로도 평가된다.

영화제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국회의사당과 광주극장, 롯데시네마 충장로관에서 열린다.

‘평화, 우리가 꿈꾸는 전쟁과 불평등이 없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영화제에는 12개국 장·단편, 다큐, 애니메이션 등 30여편이 스크린을

채운다.

개막작은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그저 사 고였을 뿐’이다. 이란 정부의 검열 속에서 제작된 이 작품에는 우발적으로 보이는 사건 뒤에 감춰진 구조적 폭력과 억압의 현실이 담겼다.

폐막작은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88세에 연출한 ‘미스터 김, 극장에 가다’가 선정. 한국 영화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한다.

특별상영작으로는 제작 25주년을 맞아 리마스터링된 ‘공동경비구역 JSA’가 다시 스크린에 오른다. 분단 현실을 인간적 시선으로 조망해 한국 영화사의 전환점을 마련한 대표적 영화로 꼽힌다.

이밖에 가자지구 전쟁의 참상을 다룬 다큐멘터리, 국제 애니메이션 단편, 명필름 30주년 기념작, AI 크리에이티브 어워즈 수상작 등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는 다양하고 실험적 작품들이 소개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 중·장년 연령 제한없이 AI크리에이티브 어워즈가 20일까지 진행된다. 소재 제한은 없으며, 1~50분 내(재생시간이 50분 이상인 작품의 경우 사무국 연락) 2025년에 제작된 작품(이미 공개된 작품도 가능)이면 된다.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 우수상 5명을 선정한다.

영화제 입장료는 무료. 정채경 기자 view2018@

‘그리움의 초상’… 감정의 온도·깊이 시각화

서현호 개인전 내달 7일까지 소암미술관

‘잡히지 않은 기억’

심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작품 속 인물들은 실존 인물이 아닌 기억과 감정의 형상으로 존재한다. 스쳐간 기억과 남은 마음이 맞닿는 찰나의 형상으로 표현된 인물들은 결국 모두가 품고 있는 ‘그리움의 초상’을 상징한다는 설명이다.

오랜 시간 동안 ‘그리움의 색’을 탐구해온 작가의 화폭에는 차가운 푸른빛을 비롯해 따뜻한 베이지, 그리고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붉은 점들이 화면에 등장하는 데 이는 감정의 온도와 깊이를 시각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작가는 지난 5년간 이어온 ‘감정의 흔적’ 연작의 완결편이자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한 이번 전시에 대해 “그리움은 부재의 감정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있는 존재의 증거”라고 밝혔다.

소암미술관 관계자는 “서현호 작가가 제시하는 ‘그리움의 초상’을 통해 존재와 감정의 깊은 울림을 느끼는 시간을 관람객 여러분께 선사하고자 한다. 이 전시가 잃어버린 존재에 대한 그리움이 아닌, 여전히 살아 있는 감정의 증거로서 예술이 지닌 따뜻한 힘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예술·기술’ 창·제작 레지던시 결과전

아시아문화전당, 26일~12월 7일 문화창조원
6개국 9개팀 전시·퍼포먼스·토크·워크숍 선택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이 2025 ACC 크리에이티브 레지던시 결과전시 ‘지능시대-Artificial You’를 오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문화창조원 창작작스튜디오에서 갖는다. ACC는 지난 2015년부터 창의적 표현의 경계를 확장하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다분야 전문가들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ACC 크리에이티브 레지던시’ 창·제작 사업을 진행해왔다. ACC 개관과 함께한 ‘크리에이티브 레지던시’는 올해 10주년을 맞아 아시아 및 전 세계 창작자들에게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실험적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국제 창작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진행된 ‘2025 ACC 크리에이티브 레지던시’의 주제는 ‘지능시대(The Intelligence Age)’

로, ACC는 지난 4월 국제공모 및 아시아 협력기관 추천을 통해 지난 6월 총 9개팀(6개국)의 창작자를 최종 선발했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프로젝트의 조사, 연구, 개발을 거쳐 완성된 9개의 프로젝트 결과물을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다.

전시에서는 인간과 기계 지능의 결합을 탐구하며, 주체의 감각을 기계, 자연, 사물 등 비인간적 존재의 영역으로 확장한다.

특히 이번 ACC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는 다양한 매체와 기술적 실험을 통해 기술의 통제와 결합을 드러내고, 기계적 시간 속에서 인간의 존재를 되돌으며, 인간의 의식이 닿지 않는 공백의 세계도 탐색하며 다가를 지능시대에 응답한다.

또한 ACC는 이번 결과전과 함께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프로그램을 함께 공개한다. 크리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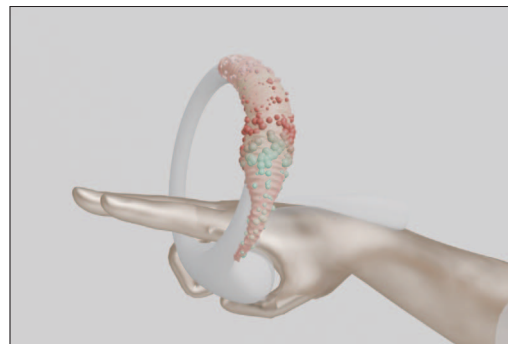


ADHD 작 ‘경계의 수확’

티브 프로젝트를 공연으로 탐바꿈한 실시간 오디오비주얼 퍼포먼스를 비롯해 프로젝트의 기술적 창작자 과정을 크리에이티브의 전시 공간에서 진행하는 테크 토크와 워크숍도 열린다.

이외에도 ‘ACC 크리에이티브 레지던시’ 10주

년을 맞아 지난 레지던시의 성과와 ‘예술과 기술’이 교차하는 다음 10년을 모색하는 ‘ACC 크리에이티브 10’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레지던시의 국내외 주요 참여자를 초청해 레지던시 이후 새로운 행보를 소개하고, 2026년 레지



쿄 작 ‘그라디’

던시 방향을 공유하며, 전문가·창제작자 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의 장을 펼친다.

김상욱 전당장은 ““ACC 크리에이티브 레지던시”는 올해 10주년을 맞아 국제 융복합 창작자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다가올 10년에도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창의적인 경계를 확장하는 실험적인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모두 무료다. 단, 테크 토크와 워크숍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사전 신청을 해야 참여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